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구현한 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

오 철 만

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삶과 행복을 마련해주는것을 근본목적으로 하는 우리 혁명은 동지애로 개척되고 동지애로 승리하여 온 성스러운 력사이다.

선군시대 우리 문학은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도덕의리에 기초한 혁명적동지애를 기본으로 하는 온 사회의 일심단결을 훌륭히 형상창조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사회정치적생명체는 우리 문학이 오 늘은 물론 미래에도 영원히 형상의 원천으로 삼고 시종일관 옹호하고 복무하여야 할 항구적인 대상이다.》(《김정일선집》 제16권 중보판 202페이지)

선군시대문학은 시대력사적조건과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 어느때보다도 혁명적동지애를 높이 발휘할데 대한 문제를 중요하게 내세우고 이 주제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특히 영화문학을 비롯한 극문학창작에서 특출한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구현한 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무엇보다먼저 혁명의 1세대인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가장 숭고한 혁명적동지애의 세계를 예술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것이다.

혁명적동지애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사랑이다. 수령은 혁명적동지애의 중심이다. 수령의 손길아래에서 동지의 대부대가 자라고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이 동지적으로 굳게 결합되게 된다.

선군시대 극문학에서는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맺어지는 혁명적동지애의 참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영화문학《한장의 사진》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동지관을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철학적으로 웅심깊으면서도 인식교양적 감화력이 크게 밝힌 성과작이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관에 매혹되어 수령님께 끝없이 충실하였던 김책동지를 형상한것으로 하여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 반세기동안 집무실금고에 소중히 보관하시였던 한장의 사진에는 김책동지에 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동지애의 세계와 사랑과 믿음이 뜨겁게 담겨져있다.

영화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동지는 제2의 나라는 관점에서 혁명적동지애를 선군시대정신의 요구에 맞게 해명한것이다.

동지는 제2의 나, 즉 자신의 제2생명이다. 이것이 영화의 형상전반을 관통하는 사상적알맹이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생애를 총화하시면서 만년국보의 유산으로 남기신 한장의 사진에 깃들어있는 동지애의 세계에 대한 참뜻이다.

영화의 커다란 감화력은 수령결사옹위가 수령에 대한 충정의 최고표현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낸데 있다.

수령을 위해 목숨도 바칠수 있는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인간, 수령을 위한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이 투철한 인간만이 수령의 참다운 혁명동지로 될수 있다.

작품에서 김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파견하신 호위군관일행에게 나로 말하면 수령님의 령을 받들고 일하는 한 전사일뿐이지만 수령님을 목숨으로 호위할 령은 혁명이, 온 민족이 내렸다는것을 모르겠는가고 질책하면서 그를 즉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곁으로 돌려보낸다. 언제 어디서나 수령의 신변보위를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총대로 결사옹위한 여기에 김책동지의 특출한 공적이 있고 영화의 중요한 인식교양적의의가 있다.

뿐만아니라 영화의 커다란 감화력은 혁명전사가 수령의 믿음을 실천과 보답으로 받는데서 백의 하나라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것을 깨우쳐준데 있다.

수령과 전사간의 혁명적동지관계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충정과 보답에서 표현된다. 수령의 믿음에 대한 전사의 보답에는 한계가 없어야 하고 순결무구하여야 한다.

평양해방을 앞두고 평양시인민위원회 일군들과 강행군을 하는 도중에 김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을 꺼내보이며 한생 장군님의 동지로 살고싶다고, 그러나 아직은 너무도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하면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일이라면 백이면 백 다 현실로 옮겨놓을 때, 장군님의 아픔이라면 백이면 백 다 깨끗이 씻어드렸을 때에야 진정 장군님의 동지라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절절하게 이야기한다.

영화에서는 수령의 참된 혁명전사라면 그 어떤 모해가 닥쳐와도 오직 수령만을 철석같이 믿어야 한데 대하여서도 감명깊게 보여주었다.

영화문학 《백옥》은 수령과 혁명전사들간의 혁명적동지애가 어떻게 이어져야 하는가를 훌륭히 펼쳐보인 명작이다.

영화는 실제한 사실자료에 기초하여 항일혁명투사 오진우동지의 숭고한 모습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들간의 혁명적동지애는 혁명적신념과 의리, 도덕에 기초한 혁명적수령관문제라는 심오한 사상적해답을 주고 있다.

영화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받들어온 오진우동지의 혁명가적풍모에 대한 형상을 통하

여 혁명의 령도자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드는 투철하고 진실한 충정이 어떤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훌륭한 대답을 주고있다.

영화는 주인공의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혁명의 령도자를 신념과 량심으로 받드는 투철하고 진실한 충실성은 바로 백옥과 같은 충정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선군시대 혁명동지애를 구현한 극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참다운 인생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동지적관계에서 다양한 예술적형상으로 해명한 것이다.

영화문학 《시대의 전우》는 선군시대에 어떻게 사는 삶이 참된 삶으로 되는가 라는 사회적으로 의의있고 중요한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가까이에서 사는것이 선군시대 인간들의 참된 삶으로 된다는것을 깊이있게 밝혀냄으로써 혁명적전우관을 깊이 새기게 하는 명작이다.

작품의 주인공 응렬은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으로 영천탄광에 지원나간다. 그는 위급한 순간에 한몸을 들이대여 동지들을 구원하고 한팔을 잘리운 초심이라는 처녀의 미거에 감복되어 그와 결혼하고 그의 행복을 지켜준다. 그는 정전으로 탄을 실은 화차들을 본선까지 끌어낼수 없는 정황이 조성되자 병사들을 불러일으켜 어깨로 밀어 끌어내기도 하고 도로건설에 동원되어서는 명령받은것은 없지만 유원지까지 멋들어지게 건설할 목표를 세우고 폭파할 때 주변의 나무들이 상하지 않도록 추운 겨울밤을 밝히며 어린 솔포기들을 베풀어 줌으로써 싸매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장군님께 올릴 편지를 쓰기도 걸음걸음 자신을 총화 지으며 장군님과 늘 마음속이야기를 나누며 그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다닌다. 작품은 응렬의 형상을 통하여 몸은 비록 멀리 있어도 마음만은 위대한 장군님곁에 세우

고 걸음걸음 뜻을 같이하고 숨결을 같이하는 것이 바로 장군님 가까이에서 사는 것이며 선군시대 인간들이 간직해야 할 참된 인생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은 순간순간을 실력과 실적으로 값있게 보내는 삶,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위대한 장군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는 일숨씨를 간직하는 여기에 선군시대 인간들의 참다운 삶의 보람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감명깊게 밝힘으로써 수령결사옹위문제의 폭과 심도를 새롭게 해명하였다. 또한 나이와 생활경위, 초소와 직무는 서로 달라도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장군님을 닮아가는 여기에 우리 사회의 불패성과 공고성, 일심단결의 원천이 있고 모두가 장군님의 선군혁명동지로 되는 비결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영화문학 《복무의 길》도 인생의 좌표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 인생의 길에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으나 좌표는 오직 하나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생각하고 장군님과 발걸음을 같이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힌 작품의 하나이다.

작품의 사상에 예술적 감화력은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정신이 열렬한 수령호모심에 근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은 수령과 혁명전사들간의 혁명적紐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발현으로 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깊이 있게 밝혀내었다.

작품에서 전사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용사로 키우는 길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칠 각오와 의지로 충만한 정치일군 윤석과 그 길에서 영생하게 되는 사단훈련참모동수의 형상은 혁명의 수령을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믿고 따르며 받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생동한 형상이다.

영화문학 《사랑의 종소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참답게 사는 것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혁명적군인정신문제, 군대와 인민의 호상관계문제에서 밝혀낸 작품이다.

작품에서 녀성과학자인 필영은 처음 연구사업의 실패로 피해를 입고 인명사고까지 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아끼시는 병사들에게 다시는 운명의 그늘을 던져주지 않으려는 마음에서 섬을 떼지만 그것이 혁명적군인정신으로 사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독백이 많이 나온다는 《독산》으로 거처지를 옮기면서까지 해일연구에 전심한다. 주인공 대일을 자기 동무를 버린 《배반자》로 오인하고 그의 어떤 아량과 진정에도 굽히지 않는 의리깊고 정의감이 강한 인물로 필영을 개성화한 것은 생활의 논리에도 맞을 뿐 아니라 누구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려는 각오로 살며 일할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 참된 인간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영화문학 《나의 스승》은 어떤 사람이 선군시대의 참된 스승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작품이다.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자들인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온 사회가 따라배워야 할 스승이라는 것이 이 영화의 사상적알맹이이다.

영화에서는 어떤 사람이 선군시대의 참된 스승으로 되는가 라는 심오한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어제날의 담임교원이 군사복무를 하고있는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목격하면서 어제는 교단에서 그들을 가르친 선생이 스승이었다면 오늘은 선군혁명의 기둥인 인민군군인들이 그의 스승이라는 커다란 사회적문제를 밝혀내었다.

경희극 《철령》은 하루밤사이에 철령을 넘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민군병사들의 혁명적군인정신에 이끌리어 인민들도 따라나서는 군민일치의 전통적기풍을 집약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 있다.

경희극 《철령》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키워주신 선군혁명의 주력군이며 기수인 인민군장병들을 화폭의 중심에 내세우

고 그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따라배우는
각계층 인민들의 군상을 형상함으로써 군
대와 인민의 사상과 투쟁기풍의 일치가 우
리 사회의 밑뿌리로, 선군혁명의 위력으로
된다는것을 감동적으로 펼쳐보이였다.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구현한 극
문학의 사상예술적특징은 다음으로 인
민군군인들속에서 높이 발휘되는 관병
일치의 전통적미풍을 훌륭히 형상하고
있는것이다.

혁명무력의 전투력강화에서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주체
혁명위업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서 피를 나
누고 생사를 같이할 혁명동지들인 지휘관
과 병사들을 굳게 단합시키는것이 보다 중
요하다.

경희극 《동지》에서는 우리 인민군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도덕적우월성의 하나인

관병일치문제를 제기하였다.

경희극에서는 사단장이 구분대에 내려
가 병사생활을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 관병
일치라는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사회정치적
문제를 제기하고 웃음속에서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밝혀내였다.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구현한 극문
학들은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선군혁명문
학의 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우고있다.

이처럼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반영한
극작품들은 수령결사옹위정신에 기초한 혁
명적동지애를 높이 발양할데 대한 문제해명
에서 높은 사상예술적경지를 보여주었다.

선군시대 혁명적동지애를 반영한 극문
학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
켜나가도록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